



# CLUB 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Summer | 2020





## 클럽디(ClubD), 27홀 규모 ‘클럽디 거창’ 오는 9월 말 오픈 보은·속리산·금강 이어 4번째 사업장, 총 135홀 전문 운영 관리…“국내 1위 도약”



국내 유일의 통합관리 전문 운영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경상남도 거창에 4번째 클럽디 사업장 운영에 나선다. 클럽디는 총 27홀 규모의 ‘클럽디 거창’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9월 말부터 정식 오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클럽디 거창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감악산 북서 측 해발 450~680m에 총면적 약 120만 평 부지에 조성된다. 무엇보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군에 들어서는 첫 골프장으로서 청정 자연을 만끽하면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전장은 국내 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9,998m(Yard 10,934)로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밀한 전략을 통해 라운드를 할 수 있어, 골퍼들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럽하우스 및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현대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해 구성됐으며, 여성 고객을 위해 라커룸엔 파우더 룸이 설치됐다. 앞서 클럽디 거창은 기존 소유주의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며 정상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이도가 금융회사와 함께 SK건설로부터 공매로 최근 인수한 뒤 정상화를 통해 오픈을 앞둔 것이다.

이로써 클럽디는 이번 클럽디 거창을 비롯해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 보은(18홀), 속리산(18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36홀), 인천 드림파크 CC(36홀) 등 총 5개 사업장, 총 135홀 규모의 골프장 코스를 전문 운영 관리하게 됐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IC에서 약 15분 거리로서, 대구, 창원에서 1시간이 걸리는 편리한 접근성도 갖췄다.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부실 골프장이나 공실이 많은 프라임 오피스, 오래된 폐기물 시설 등에 금융회사와 협업으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해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운영관리 역량을 접목해 정상화 및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는 국내 유일의 O&M 플랫폼 회사”라며 “골프장 매각이나 투자, 전문적인 운영사가 필요한 소유주나 운용사, 증권사, 연기금 등 금융회사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해법을 지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규 클럽디 거창 총괄 지배인은 “최상의 코스 상태 조성 및 클럽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골프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장 운영으로 거창 인근 및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규 클럽디 거창 총괄 지배인 글 | ClubD MAGAZINE

## 클럽디(ClubD) 속리산, 오픈 1주년 기념 초청 행사 개최

지난해 5월 29일 그랜드 오픈한 충북 보은 지역의 대표 퍼블릭 골프장 ‘클럽디 속리산’이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우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클럽디 속리산을 총 2회 이상 방문한 연단체 고객 및 우수고객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80명의 고객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스트로크 방식 및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비는 그린피 및 카트비, 식사를 포함해 1인당 14만원으로 참가자들에게는 4인 라운드 이용권과 골프 용품 등 총 약 1000만원의 경품이 수여됐다. 스트로크 방식의 최저타 우승자는 76타를 기록한 최현림씨가 차지했으며, 약 17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신페리오 방식의 우승자는 총 69.8타를 기록한 김영식씨가 차지했다. 클럽디 속리산은 속리산IC에서 5분 거리로 청주에서 20분, 대전 30분 천안·구미에서 40분, 동서울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는 편리한 접근성을 갖췄다.

클럽디 속리산은 1박 2일 골프 패키지, 계절 행사, 프라이빗이동 서비스 무브(MOVV)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 속리산 그랜드 오픈 1주년 골프대회 기념 촬영 모습

# 제4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예선 대회 '성황' 9월 결선 거쳐 오는 10월 파주 서원힐스서 왕중왕전 열려…“전국 대회로 확장”



국내 골프장 주최 최대 규모인 총상금 4억원 규모의 '제4회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대회 예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장의 명품 퍼블릭 서원힐스CC와 주식회사 이도(YIDO)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예선전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200명) 및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CLUBD) 보은(80명)과 클럽디 속리산 (80명),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80명) 등 총 4곳에서 각각 예선이 진행됐으며, 단 한 명의 불참자도 없이 여성 골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원힐스에서 가장 먼저 개최된 예선의 컷오프는 83타로 집계됐다. 1위는 70타를 기록한 유현희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71타(백 카운트34)를 기록한 이인옥씨, 3위는 71타(백 카운트35)를 기록한 유지민씨로 나타났다.

클럽디(ClubD) 보은 예선의 컷오프는 81타로 집계됐다. 1위는 75타를 기록한 이영미씨가 차지했고, 2위는 77타를 기록한 박보영씨(백 카운트38) 3위는 77타를 기록한 김서연(백카운트39)씨가 차지했다. 또한, 클럽디 (ClubD) 속리산의 컷오프는 82타로 집계됐으며, 1위는 72타를 기록한 강연주씨가 차지했고, 2위는 74타를 기록한 이혜숙씨, 3위는 75타를 기록한 임효정(백 카운트38)씨로 나타났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오는 9월 서원힐스(100명)와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60명)에서 결선에 참가한다. 이후 선발된 32명에게는 오는 10월 서원힐스에서 열리는 통합 왕중왕전 1라운드에 진출하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글 | ClubD MAGAZINE



## 대한민국 지도를 형상화한 클럽디 금강 'WEST 8번'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 WEST 8번은 대한민국 지도를 형상화한 이색적인 홀입니다. 티샷을 마친 후 그린으로 가는 방향 좌측에 제주도를 표현한 해저드 특설 티가 있으며 특설 티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하르방이 세워져 있기도합니다. 숏 아이언이나 미들 아이언을 잡을 수 있는 128m 아일랜드 PAR3 홀로 짧은 거리지만 그린을 감싸고 있는 워터해저드와 그린 앞뒤로 위험적인 벙커가 있으며, 좌우로 45m인 큰 그린으로 핀 위치에 따라 정교한 아이언샷을 요구합니다. 플레이어가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큰 스코어를 피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홀입니다.

코스재원 : PAR3홀 128m(화이트 티), 87m(레드티)  
코스기록 : 홀인원 13회 / 버디 3,194회 / 파 30,521회  
보기 34,507회 / 더블보기 20,854회

글 | 김미건 클럽디(ClubD) 금강 경기 팀장



## 충북의 알프스를 느낄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EAST 1번'

화이트티를 사용하면 비교적 짧은 PAR4홀입니다. 좌측 도그렉 홀이라 카트 도로를 IP 지점으로 공략해야 안전하게 페어웨이 안착이 가능합니다. 티샷만 안정적이면 무난하게 투온을 할 수 있습니다. EAST 코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의 꿈을 가지게 하는 홀이기도합니다. 티잉 에어리어에 서게 되면 '충북의 알프스'라고 표현하는 구병산이 병풍처럼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클럽디속리산 포토존으로 인기 많은 홀입니다. 이른 새벽 구병산 중턱에 안개가 멋지게 걸쳐 있어 아름다움의 백미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경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이른 새벽 부지런한 골퍼만이 만끽할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최고의 선물입니다

코스재원 : PAR4홀 373m(화이트 티), 280m(레드티)  
코스기록 : 홀인원 5회 / 이글 53회 / 버디 2,081회  
파 46,038회 / 보기 31,443회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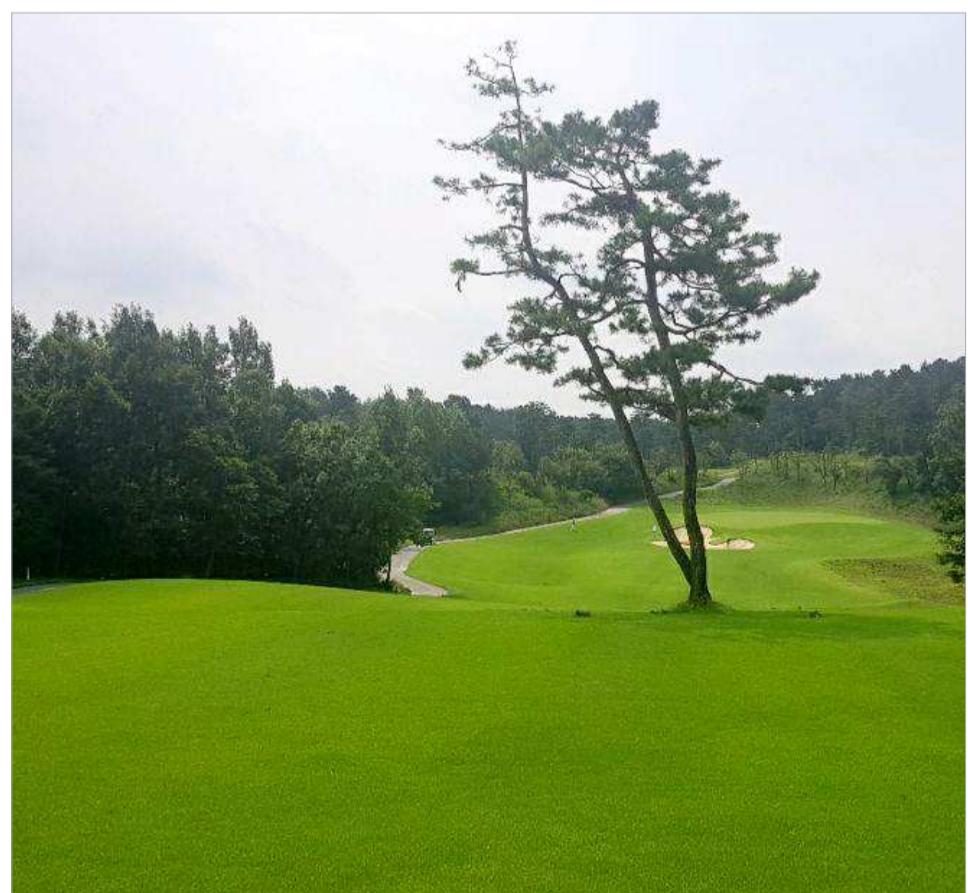


## 전략적인 티샷의 내리막 블라인드 홀 클럽디 보은 'EAST 1번'

티잉 에어리어에 올라서면 그린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 블라인드 홀로 공략지점이 협소해 보이거나 IP 지점에는 충분히 넓은 페어웨이가 존재합니다. 페어웨이 중앙에 위치한 두 그루의 소나무 좌측으로 공략해야 세컨드 샷이 용이합니다. 페어웨이 중앙에 두 그루의 소나무는 마치 왈츠를 추는 듯한 한쌍의 남녀가 연상되는 홀로 재미와 스토리가 있는 홀이기도 합니다. 세컨드 샷부터는 내리막으로 거리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150m 정도만 가볍게 보내면 편안이 어프로치 샷을 해 그린 앞 좌측 벙커를 피해 쓰리온을 할 수 있어 충분히 버디를 잡을 수 있는 홀입니다.

코스재원 : PAR5홀 473m(화이트 티), 395m(레드티)  
코스기록 : 알바트로스 1회 / 이글 105회 /  
버디 4,745회 / 파 76,377회 / 보기 44,258회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 팀장



## INFLUENCER INTERVIEW

# 간판 아나운서에서 영국 유학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 '이성배 MBC 아나운서'

2000년대 후반 '아나테이너'(아나운서+엔터테이너)가 전성시대였던 시절. 수백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MBC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이성배 아나운서(39)다. 무엇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돌연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길인 아나운서에 도전해 단번에 합격한 그는 지망생들 사이에선 항상 화두였다. 그렇게 10년 넘게 마이크를 잡고 시청자 앞에 섰던 그가 지난해 아들과 함께 영국 유학길을 떠났다. 방송에 대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소중한 가족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고, 처음 아나운서에 도전할 때처럼 변화와 도전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약 10개월 만에 귀국해 이제는 콘텐츠 제작자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성배 MBC 아나운서를 만나봤다



Q. ClubD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이성배 아나운서(이하 이 아나) : 클럽디(ClubD)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이성배입니다. 2008년에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해 방송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차의 중견급 아나운서가 됐네요. 최근 유학에서 돌아와 방송 콘텐츠 제작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Q. ClubD : 인터넷 포털 인물검색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MC, 리포터 등 진행한 방송 프로그램이 엄청나네요?

A. 이 아나 : 'TV속의 TV', '섹션TV 연예통신', '경제매거진 M', '불만제로 UP', '스포츠 매거진' 등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고요. 2015년 '진짜 사나이 2'와 2016년 '복면가왕' 등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했습니다. 그 외 라디오 방송, 내려이션 등 시사, 예능, 스포츠, 라디오 DJ 등 많은 분야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배려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ClubD : 최근 영국 유학을 떠났다고 귀국했다고 들었는데요?

A. 이 아나 : 맞아요. 지난해 8월 육아휴직을 내고,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귀국한 지는 한 2개월 됐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저 역시 우리나라에 오니까 역시 좋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Q. ClubD : 아나운서로서 소위 가장 잘나갈 때 훌쩍 유학길을 떠났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A. 이 아나 : 주변 분들이 유학을 떠나느냐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유학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차근차근 아나운서로 경력을 쌓고, 인지도도 많이 얻었지만, 마음속으로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고민하며 준비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아나운서에 합격했을 때도 삼성전자에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 내고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몇 년간 준비했어요.

Q. ClubD : 방송에 대해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A. 이 아나 : 그렇긴 했죠.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망이 더 컸어요. 공부는 7년차 아나운서 때부터 지속해서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부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전공을 살려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입학해 저널리즘, 뉴미디어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방송하면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성취했다는 것에 만족감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서 방송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업무도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 덕분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종양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도 했는데 강의하면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더 생겼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육아휴직을 내고 1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Q. ClubD : 석사를 따고도 유학까지 다녀왔는데요. 어떤 공부를 더 하셨나요?

A. 이 아나 :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진학했어요.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런던 의회민주주의 이런 걸 공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IT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사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치학 관점에서 어떻게 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유력 언론인이나 정치가들이 미디어라는 강력한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도 하고요. 또, 최근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하는데, 국제기구들과 협업해서 안면인식 도입이 개인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선 어떠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Q. ClubD : 그렇군요. 그런데 유학을 아들도 함께 다녀왔더라고요?

A. 이 아나 : 맞아요. 저는 현재 싱글 대디로 아들을 훌로 키우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었는데, 유학을 통해서 아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기도 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40대가 되니 내가 주인공이 아닌 아들을 위한 아빠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Q. ClubD : 골프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골프는 좋아하시나요?

A. 이 아나 : 네, 좋아합니다. 사실 골프 덕분에 어쩌면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30대 중후반에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했지만, 개인사로 인생에 다소 부침을 겪으면서 우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골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죠. 저한테 골프는 단순히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의 인생을 오픈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의 제가 밝게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Q. ClubD : 골프 실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A. 이 아나 : 구력은 한 7년 정도 되고요.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는 80 타인데요. 평균 83~84타 정도는 치고 있습니다. 골프 품은 배상문 프로님을 닮았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히, 골프 스윙할 때 '에델바이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매길로이를 좋아해서 '항상 속으로 '매~킬~로~이'라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웃음)

Q. ClubD : 이 정도 실력이시면 골프 캐스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A. 이 아나 : 골프 중계를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골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중계를 맡았어요. 당시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중계 중 가장 어렵다는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F1), 격투기 종목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골프 중계가 별로 말이 없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먼저 골프방송을 보면 방송 장면이 짹짜 넘어가는 데, 선수를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코스를 모르니까 몇 번 훔에 몇 번째 샷인지 진짜 미친 듯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축구 중계나 야구 등은 '슛 들어갑니다!', '아! 아쉽게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감정이 빠르게 폭발할 수 있는데요. 골프는 항상 차분하게 잔잔하게 감정 조절을 해야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는데요, 골프 구력이 어느 정도 생겨서 중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ClubD : 클럽디(ClubD) 골프장은 가보셨나요?

A. 이 아나 : 네, 충북 보은에 있는 보은과 속리산 2곳을 가봤는데요. 아기자기해서 재밌었던 느낌이 강했고요. 힘자랑한다고 빵빵상을 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함께 코스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워야하는 골프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 자연경관도 아주 좋았어요.(웃음)

Q. ClubD :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A. 이 아나 : 복직해서 현재 특임사업부에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업무이기도 해서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작 쪽 업무를 하려고 해요. 예전에 웹 콘텐츠 '마구단' 제작을 한 경험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또한, 골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과 소통을 하려고도 해요. 유학에서 공부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나 박사 학위 등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제작자로서 이성배에 대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ClubD MAGAZINE

## CULTURE STORY

# 요즘 뜨는 경남 합천 아름다운 호숫가의 집 '미호가 풀빌라'

최근 국내 이색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 합천이다. 합천은 '들판은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합천댐과 어우러진 합천호수를 바라보면 절대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바다와는 다른 호수의 모습은 물론 수상스키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길 수도 있으며, 주변 해인사와 황매산, 가야산 등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20~30대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합천호를 중심으로 럭셔리한 풀빌라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중 '미호가 풀빌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름다운 호숫가의 집'이라는 의미의 미호가 풀빌라는 프라이빗 한 복층 독채로 구성돼 있으며, 테라스에서 합천호를 즐길 수 있다.

프라이빗 한 수영장과 스파도 갖춰져 있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힐링할 수 있다. 룸은 27평 규모로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주중 20만원 주말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입실은 15시부터,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이다. 인기가 많은 만큼 여름철 성수기에는 예약하기가 어려워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오는 9월말 오픈 예정인 클럽디(ClubD) 거창에서는 차로 약 45분 거리로 가까워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 후 여행지로 가볼만 한 곳이다. 글 | ClubD MAGAZINE



# 자연이 주는 건축미학의 완성 ‘클럽디 속리산’ 레스토랑



임영수 셰프



속리산과 구병산의 절경을 경험할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의 클럽하우스는 퍼블릭답지 않은 외관을 갖췄다. 고급스러운 외관 장식과 넓은 1층 로비와 2층 레스트토랑 및 룸은 회원제 골프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설을 갖췄다. 그래서 충북에서 좋은 골프장을 가고자 하는 골퍼들이 꼭 찾는 곳이다. 이런 클럽디 속리산의 레스토랑은 ‘임영수 셰프’가 책임지고 있다. 임영수 셰프는 올해 20년 차인 베테랑이다. 1998년 잠실 롯데호텔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조리에 입문했으며 각종 대회에서 최우수 수상을 할 정도로 실력파다. 임 셰프는 실제 지난 2003년 서울 국제 요리대회 더운 요리, 찬요리 부분 금상을 수상했으며, 안산 향토 요리 페스티벌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남양주 해비치CC 파트장, 충주 센테리움CC 파트장, 경기도 광주 중부CC 조리장은 물론 CJ프레시웨이 외식 부문에서 근무를 하는 등 다양한 조리 및 레스토랑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임 셰프가 추천하는 클럽디 속리산만의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이다. 클럽디 속리산에서 많이 판매되고 가장 사랑받는 메뉴인데, 속리산만의 비법을 통해 대표 메뉴로 만들었다. 기존 비빔밥에 계란프리이나 다른 고명이 아닌 달콤한 불고기를 구워 올려, 체력을 보충하는 식사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차돌박이 모듬 버섯전골’도 인기 메뉴다. 담백한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버섯(느타리, 표고, 새송이, 팽이버섯, 자연송이) 등을 풍성하게 올려 진한 버섯의 풍미를 살리고, 신선한 차돌박이로 마무리하여 고소함을 더한 대표적인 웰빙 메뉴이다. 이밖에 ‘대추 맛 냉채족발과 폭립’ 여름철 임 셜프가 추천하는 메뉴다. 충북 보은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추를 이용하여 개발한 대추소스를 족발위에 올리고 시원한 냉채를 곁들인 여름철 대표 메뉴다. 양념폭립까지 포함해 맥주 등 주류와 곁들여 안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글 | ClubD MAGAZINE

## FINANCE STORY

### “수익가치와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에 관심 가져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한국밸류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국내 대표적인 가치투자 ‘대가’인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해선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현시점에서 자산 보유량이 많아 본질이 튼튼함에도 이유 없이 저평가된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와 언택트 등 성장주의 쏠림 현상에서 시가총액보다 순현금자산이 높은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가 말하는 ‘내재가치’란 미래에 발생할 성장가치와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치인 수익가치, 과거에 이어 확보된 자산가치를 더한 가치평가를 의미한다.

이채원 대표는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이익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기 전후로 급변했던 기업 이익이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성장기대감에 의한 시장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소외됐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SCI 월드 인덱스와 비교해 한국은 주가수익비율(PER)은 38%, 주가순자산비율(PBR)은 59%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2006년 이후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 평균은 1.07배인데, 최근 0.9배로 역사적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시가총액이 약 1,600억원 수준인 A기업이 현금보유만 1,000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2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공장을 매각해 약 3,0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며 “성장주 중심 장세여서 소외가 되다보니 당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B기업의 경우도 예로들며 “현금이 6,000억원에 달하는데, 시가총액은 2,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어 “성장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금리 저성장 영향이 크다”며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듯이 수익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현금보유량이 많은 기업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선 내재가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룰, 의무공개 매수제도,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 주주는 1%, 10% 주주는 10%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며 “미국과 유럽과 같이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 주주들에게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팔 것인지를 묻는 태그얼론(공동매도청구권, Tag-along)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해 외부 악재에 크게 반응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며 “이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채원 대표는 1988년 동원증권(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한 뒤 1998년 국내 최초의 가치투자펀드 시리즈를 시장에 선보였다.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당시 자신이 운용하는 ‘밸류 10년 투자 주식 펀드’가 손실이 나자 운용보고서에 직접 사과의 말을 투자자들에게 전해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사, 기업, 학계, 의결권자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율적 민간기구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KCGF)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글 | ClubD MAGAZINE

#### 가치평가의 3대 요소



※ **내재가치** = 자산가치(과거) + 수익가치(현재) + 성장가치(미래) ... 가치합산방식 (Sum of parts)  
= 투자에 의한 미래 양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John Burr William ... Buffett 방식  
= 합리적인 투자가 현금을 주고 전체사업을 살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내재가치의 의미 및 가치평가 3대 요소. 자료=한국밸류자산운용>

# O&M 플랫폼 (주)이도, 급성장 배경 및 IPO 추진 언론 집중 조명 밸류애드 전략 통한 금융구조화 및 전문 운영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

(주)이도, 하반기 코스피 상장 박차…“밸류애드 통한 자산 가치 극대화”

증권 | 입력 2020-07-14 19:27:34 | 김해연 기자 | 9면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편안한 목가적 풍경과 내리막의 아일랜드 그린을 갖춘 '클럽디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의 원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라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과 함께 세계의 유명 골프장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코스를 갖춘 '클럽디 금강'  
 감악산의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클럽디 거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종착지인 클럽디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클럽디금강 생일 그린피 50% 할인 이벤트**

CLUBD금강코스를 이용해 주시는  
소중한 인터넷회원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골프장 내장 당일 생일 맞으신 고객  
그린피 50% 할인 혜택**

**50% 할인**

[ 이벤트 유의사항 ]  
 - 본 할인혜택은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상 생일로 적용됩니다(음력불가)  
 - 본 할인혜택은 클럽디 통합인터넷회원 가입되어 있으셔야 적용 가능합니다.  
 - 본 할인혜택은 타 이벤트 및 할인쿠폰, 부킹 대행 업체 및 기타행사와 중복 할인 적용 불가합니다.

### CLUBD 우수캐디

박지윤  
ClubD보은(경력12년)

김지우  
ClubD속리산(경력8년)

차정미  
ClubD금강(경력13년)

**시니어 이벤트**

주중 1부 내장하는  
60세 이상 고객 1만원 할인  
이벤트기간 : 3/2(월) ~ 3/3(화)

클럽디금강 그린피 1만원 할인권

**10,000원**

이벤트 유의사항  
상기 이벤트는 클럽디 통합인터넷회원 가입되어 있으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벤트 요금은 기준 출발시 적용되며, 타 이벤트와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금호리조트에서  
놀다가시개**

설악/화순/제주 PET ROOM

**1**

**10,000원**

문의 전화 : 02 - 737 - 5400

### MOVV 국내 골프 이동서비스

- 베터랑 기사가 집집마다 모시러 가고!
- 버스 전용차선으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 최고의 컨디션으로 라운딩에 집중하고!
- 클럽하우스에서 마음 편히 즐기고!
- 원하시는 곳 어디든 모셔다 드립니다~!

전용기사·전용차량 [12시간 이용]

넓고 쾌적한 11/15인승 [마니발 쿠라티 등]

이용민원 전원 자택 승·하차 가능

GOLF, move to **MOVV** 문의 : 1877-2025

**클럽디 보은** T 043-540-8888 E algml5968@yido.com F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T 043-540-8000 E golfsjy@yido.com F 043-544-9600  
**드림파크CC** T 032-560-1700 E alstjr916@yido.com F 032-560-1789

**클럽디 금강** T 063-720-7700 E altnr1219@yido.com F 063-720-7799  
**클럽디 거창** T 055-945-2222 E karren3072@yido.com F 055-945-6060



www.clubd.com

**CLUBD**